

남해에서 만난 여행자들

여행의 방 기록집

여행작가 권다현

사진작가 서영길 이환수

여행자 김지혜 정진규 박혜교 정유진 강동한
원종호 김건우 임수진 정소란 지미정



남해관광문화재단
NAMHAE FOUNDATION FOR TOURISM & CULTURE



목차

I. 들어가는 글	남해에서 만난 여행자들	02
	여행의 방, 1박 2일의 여정	03
II. 참여 작가 소개	남해를 찾은 세 명의 작가들	06
III. 작가의 노트	권다현 작가 에세이	07
IV. 작가의 시선	서영길 작가의 사진	11
	이환수 작가의 사진	16
V. 여행자의 기록	참가자 10인의 에세이	21
	기억하고 싶은 남해의 장면들	54

남해에서 만난 여행자들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해”

바다의 푸르름과 너른 품의 산, 입 안 가득 번지는 미식의 즐거움, 정겨우면서도 감각적인 골목골목과 그 사이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남해는 처음 찾은 이도, 다시 찾은 이도 모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섬이다.

이국적인 지붕 아래 삶의 이야기가 흐르는 독일마을, 숲과 바다 그리고 마을이 공존하는 방조어부림, 고요하고 깊은 섬을 품은 편백자연휴양림, 서로 다른 일상과 취향이 어우러진 거리, ‘여행의 방’은 바로 이곳, 남해 삼동면에서 시작되었다. 사나운 여름비를 뚫고 남해 독일마을에 여행자들이 모였다. 카메라를 들고, 펜과 노트를 품고. 여행 작가 권다현, 사진 작가 서영길과 이환수, 그리고 여행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싶은 10인의 참가자들이 남해 삼동면의 낮과 밤, 풍경과 마음, 만남과 감동을 함께 채운 1박 2일.

그들은 함께 셔터를 눌렀고, 마음에 품은 문장을 꺼냈으며, 낯선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각을 깨우며, 나누고 싶은 장면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 기록은 13인의 여행자들이 남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각자의 언어와 시선으로 담아낸 이야기다.

이 글을 읽다보면 그들의 이야기 사이 어딘가에서 진짜 여행의 의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언젠가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찾아 떠나고 싶어질 때, 그 여정의 출발점이 남해가 되기를 바란다.

여행의 방 1박 2일의 여정

DAY 1

11:00~12:00 오리엔테이션

12:00~13:00 독일 요리 점심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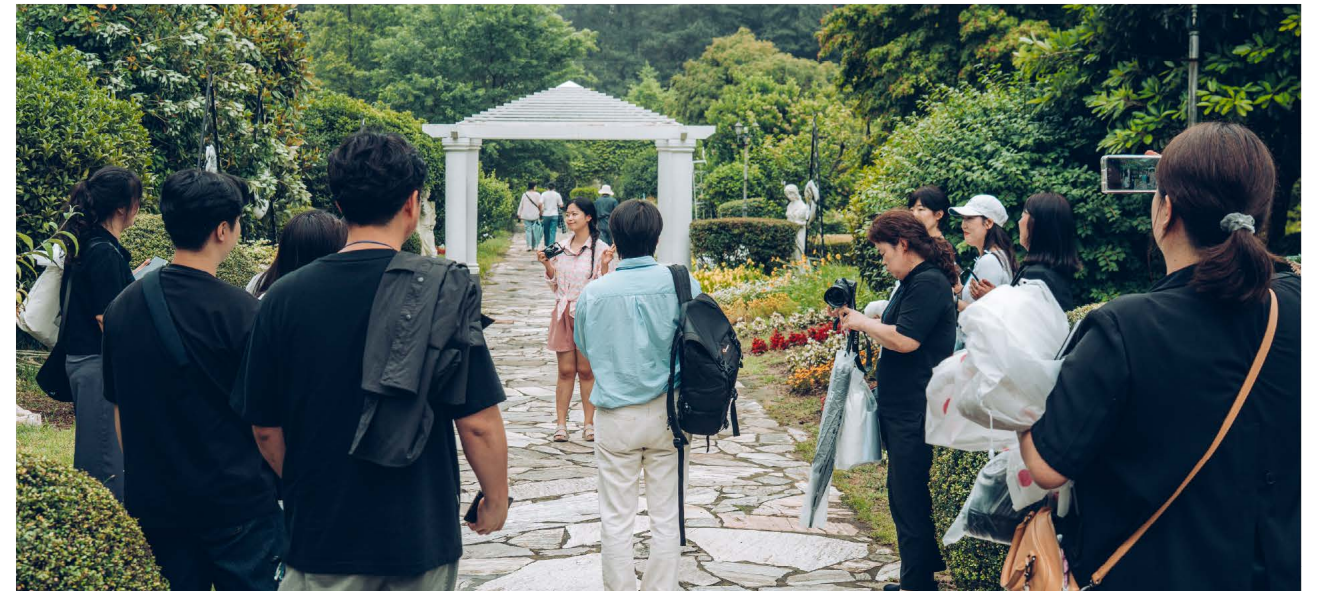


13:00~13:40 원예예술촌 투어

13:40~14:50 권다현 작가의 에세이 강의



14:50~16:00 서영길 작가, 이환수 작가 사진 강의



16:00~16:20 독일마을 전망대 방문

16:20~17:50 바람흔적미술관 투어, 이승모 관장과의 만남



17:50~19:00 남해 로컬 푸드 멸치 쌈밥 저녁 식사

19:00~20:00 물건리 몽돌해변 피크닉&여행자 네트워킹



DAY 2

09:00~10:00 개인 정비 및 오리엔테이션



10:00~14:30 팀별 투어



14:30~16:00 에세이 시뮬레이션 및 마무리



II

참여자작가 소개

남해를 찾은 세 명의 작가들



여행작가
권다현

2014 한국관광의 별 단행본 대상 수상
2024 김천김밥축제 스토리텔링
『나홀로 진짜여행』, 『아이여행 가이드북』
『서울여행코스 101』 등 10여권의 여행책 집필



사진작가
서영길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에서
소니 SIPS 프로 서포트
웨딩스냅업체 운영
『남는 건 사진뿐일지도 몰라』 저자



사진작가
이환수

대한민국 구석구석, 소니코리아와 협업
여행 전문 사진가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64』 저자

여행작가 권다현 에세이

남해는 그저 사랑이었다

남해에 대한 막연한 애정을 나조차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틀동안 함께 설레고 두근거렸던 이들이 증명해줬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고, 남해는 그저 사랑이었다.

하나같이 사랑에 빠진 얼굴들이었다. 여름날처럼 질푸른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럴만도, 싶겠지만 이들 시선이 가닿은 곳은 서로가 아닌 남해였다. 첫사랑에 빠진 열여섯 소년소녀들처럼 들뜬 표정에 내 마음까지 못 견디게 두근거렸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남해의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걸까. 왜 남해에 우리는 매료되었던 걸까.

지난 봄 낮선 이름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평범한 섬의 메일이었음에도, 나의 눈은 이미 남해란 두 글자에 멈춰버렸다. 게다가 하룻밤을 온전히 남해에 안길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이라니, 조율해야 할 문제가 한참 남았음에도 답장 끝에 마음을 들켜버렸다.

“그럼 눈부신 여름날 남해에서 뵙게요.”

손꼽아 기다리던 남해로의 여행 첫날, 내내 맑았던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날씨예보를 몇 번이나 들여다본 끝에 새벽기차에 몸을 실었다. 녀두리가 새어나올 법 하건만 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같다. 남해니까 괜찮아. 생각했던 것 같다. 남해니까 괜찮아.

독일마을과 가까워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졌다. 담당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하나 둘, 라운지로 들어서는 참여자들의 표정을 살폈다. 혹여 아쉬운 마음에 찡그린 얼굴이라도 있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한여름 햇살처럼 뽀뽀한 표정들에 나도 모르게 의아해졌다. 잠시 후 자기소개가 이어지자 나의 의문은 더욱 짙어졌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해를 향한 풋풋한 설렘과 묵직한 그리움들을 쏟아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비가 쏟아지는 남해로 이끌었던 걸까. 나 또한 같은 마음으로 먼길을 달려왔음에도,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궁금해하고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첫번째 일정은 독일마을이었다. 한국 속 작은 유럽, 한국의 독일...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표현들이다. 간혹 이국적인 풍경의 여행지를 검색하다보면 쏟아지는 ‘한국의 000’이란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적어도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그곳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애정어린 시선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여행지를 우위에 따라 나열하고 하나의 장소를 다른 장소의 유사품 혹은 대체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000’은 여전히 떨치지 못한 사대주의적 태도라 생각한다. ‘한국의 000’을 자처하는 여행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가짜로 만들어낸 세계, 모조품일 뿐인 풍경을 자랑하는 꼴이다. 알려진 것처럼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다. 언뜻 먼나라 풍경을 흉내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연을 품은 이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삶이 흐르고 이야기가 숨쉰다.

걸음은 원예예술촌으로 이어졌다. 걷기만 해도 봉실봉실 미소가 피어오르는 동네다. 저마다의 감성으로 꾸민 정원은 나무도 꽃도 연꽃도 장식품도, 무엇 하나 같은 게 없다. 싱그런 여름날을 맞아 정원마다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비가 내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초록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하고, 부드럽게 내려앉은 안개마저 꿈결처럼 안온하다. 이 마을을 처음 찾았던 십여년 전부터 여전히 이곳을 사랑하는 건, 이처럼 화려한 경관 때문이 아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내는 일도 버거운 나는 한뼘의 정원에도 무수한 관심과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온 마음과 살가운 눈길 손길이가닿았을 정원은 이들이 정성스레 지켜낸 일상이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에도 진심을 다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잠시 스쳐갈 뿐인 여행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마도 그들은 모를 테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름 그대로 바람만 잔뜩 맞고 돌아섰던 바람흔적미술관의 여름은 또 얼마나 싱그러웠던가. 비밀스레 숨은 돌계단을 따라 들어서니 아침부터 내린 비로 잔뜩 불어난 계곡 물소리가 귓가를 서늘하게 한다. 야옹. 홀린 듯 돌아보니 구름처럼 하얀 고양이가 아양을 떨며 곁을 내준다. 이보다 더 사랑스런 환대가 있을까 싶다. 내산저수지를 끼고 그림처럼 들어앉은 미술관은 평소 무인으로 운영된다. 소박한 규모의 전시관이지만 누군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니 오롯이 나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여유롭다. 그러나 이곳 미술관의 걸작은 앞마당에서 바라보는 경치, 그 자체다. 우리 한옥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차경, 즉 자연의 경치를 빌려오는데서 완성된다고 한다.

이곳 미술관도 그러하다. 건물을 등지고 서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경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여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물건해변에 모여 앉았다. 독일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이 오붓한 바다는 초승달 모양으로 굽어진 몽돌해변이다. 바람결에 밀려든 파도가 몽돌 사이를 빠져나갈 때 자갈자갈, 청량한 소리가 쏟아진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울창한 숲길도 매력을 더하는데, 무려 300년 세월 동안 바닷가마을을 지켜낸 방조림이다. 예부터 해안지대에서 바람이나 해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꾼 숲이란 의미인데, 일제강점기 목초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총칼에 맞섰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낸 셈이다. 마침내 어둠이 내려앉고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불을 밝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늑한 고요에 빠져들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다 싶다. 내일이면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각자의 일상을 버텨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시라도 서로가 서로의 위안이 되어줬으니 말이다.

이튿날 편백숲을 찾았다. 선물처럼 맑게 갠 하늘과 싱싱한 여름의 숲, 그리고 불과 하룻밤만에 오랜 친구처럼 살가운 낯선 이들이 믿기지 않는 아침이었다. 폭신한 흙길의 감촉에 집중하며 걷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청량한 햇살에 잠시 낮을 잃기도 하며 숲길 중간에 이르렀을 때, 맑고 투명한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기꺼이 신발을 벗었다. 여행은 때로 그곳에서 만난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보다 코끝을 간질이는 바람과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결, 도시에서는 듣기 어려운 사랑스런 소음들로 기억되곤 한다.

비가 쏟아진 다음 날의 계곡만이 품은 상쾌한 공기를 온 감각을 열어 느끼고 싶었다. 나의 작은 용기에 하나 둘 신발을 벗고 곁에 와 앉았다. 망설이듯 차가운 물살에 발을 담갔다 이내 어린아이처럼 웃음이 터진 이들에게서 여행만이 지닌 다정한 틈새를 느꼈다.



지난 밤 물건해변에서 하루 중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을 나눌 때 왜 바람흔적미술관에서 보았던 독도 그림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열악한 접안시설 탓에 삼대가 덕을 쌓아야 입도할 수 있다는 독도는 첫발을 내딛는 순간 누구든 뭉클해지고 마는, 가장 특별한 우리땅이다. 간혹 독도에 관한 글을 쓸 때도 그와 같은 표현으로 소개했던 것 같다. 그럼 남해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누구든 발 딛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섬, 이번 여행 이후 남해에 관한 글을 쓴다면 그렇게 표현할 것 같다.

남해에 대한 막연한 애정을 나조차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틀동안 함께 설레고 두근거렸던 이들이 증명해줬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고, 남해는 그저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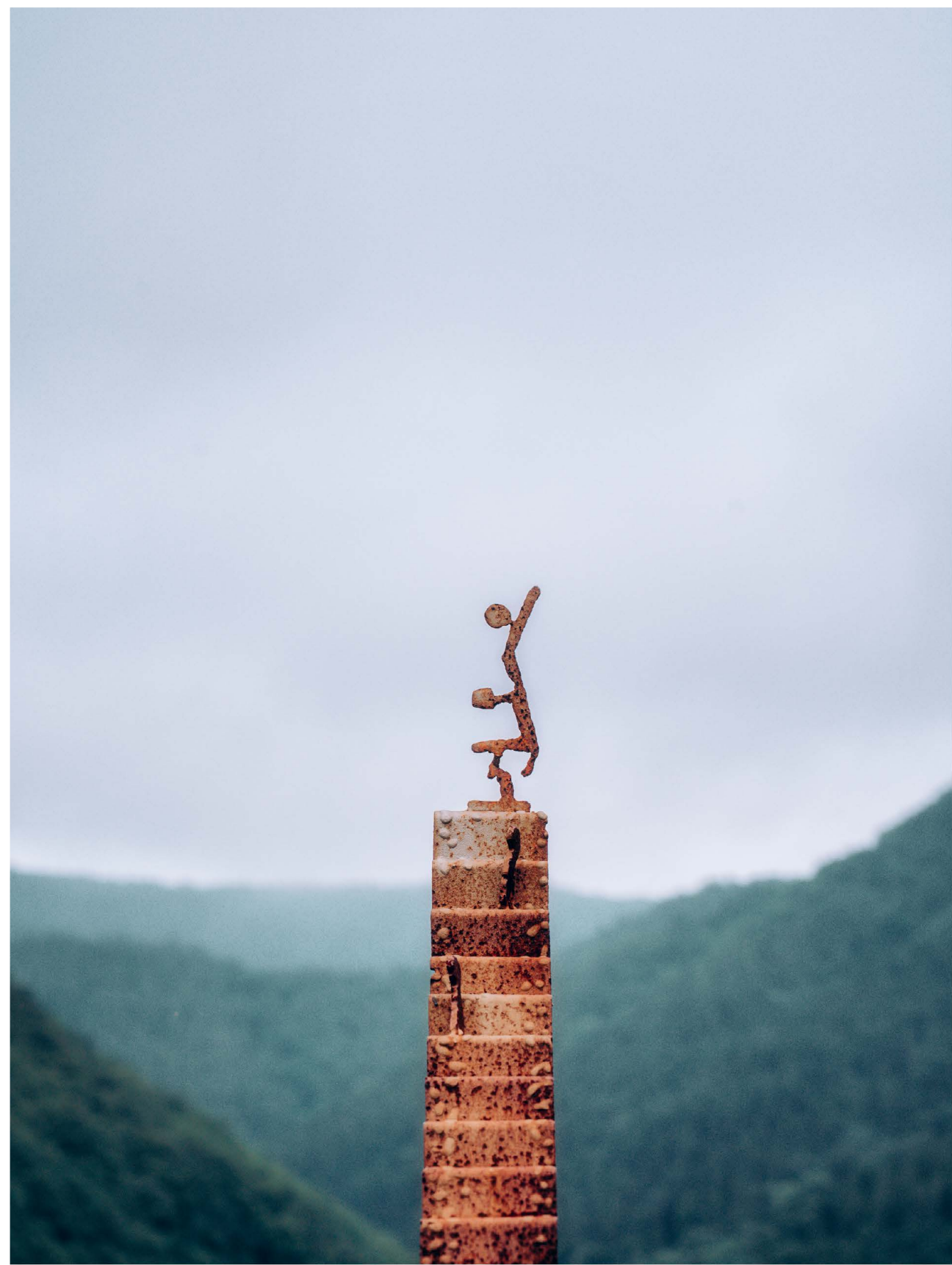
작가의 시선 1

여행, 기록, 그리고 연결 서영길 작가의 프레임에 담긴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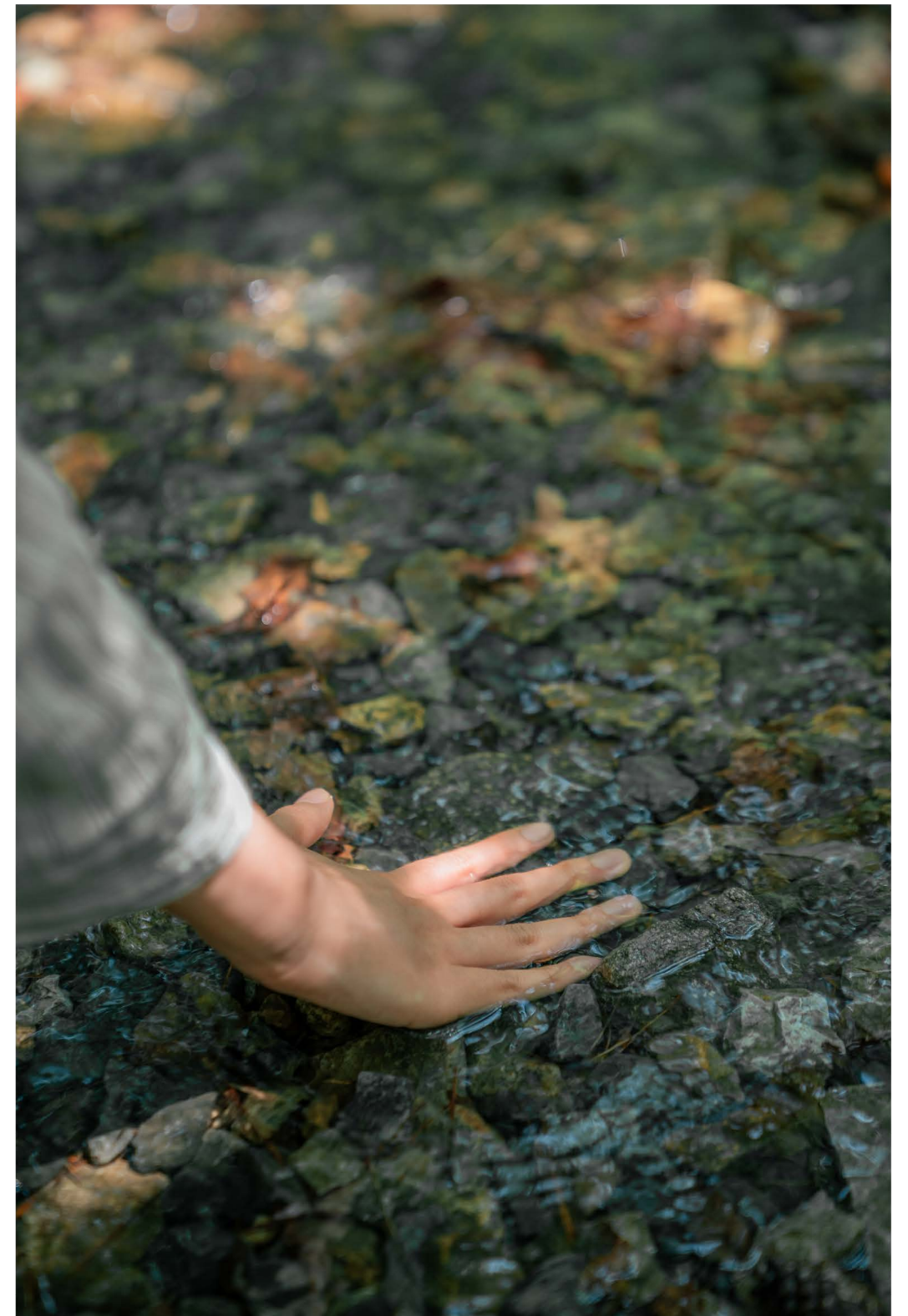






작가의 시선 2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다시 남해
이환수 작가가 남해에서
새롭게 만난 순간들











V

여행자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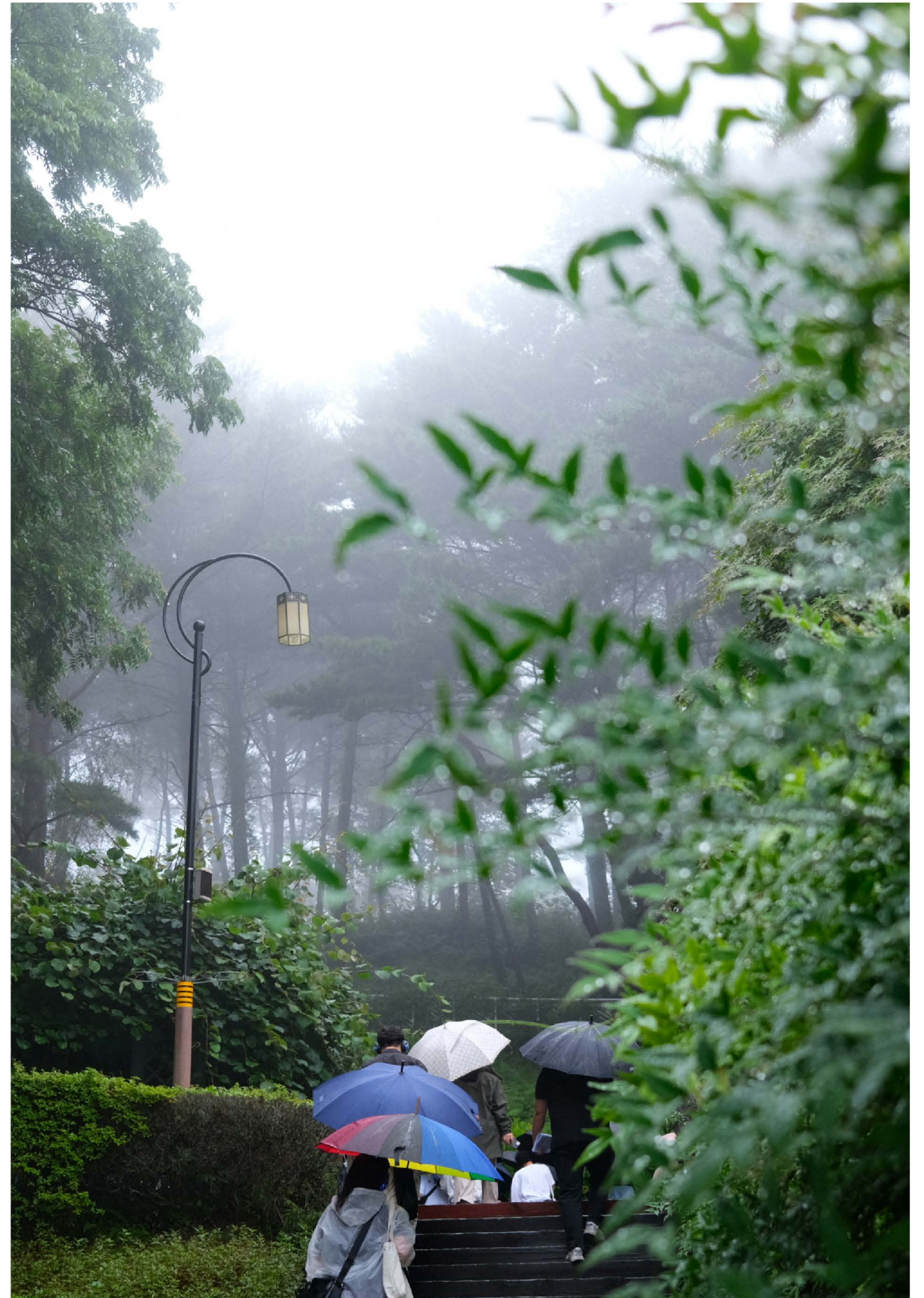
01

안개도 감추지 못할 존재가 있는 곳, 남해의 산속으로 폭삭 안겨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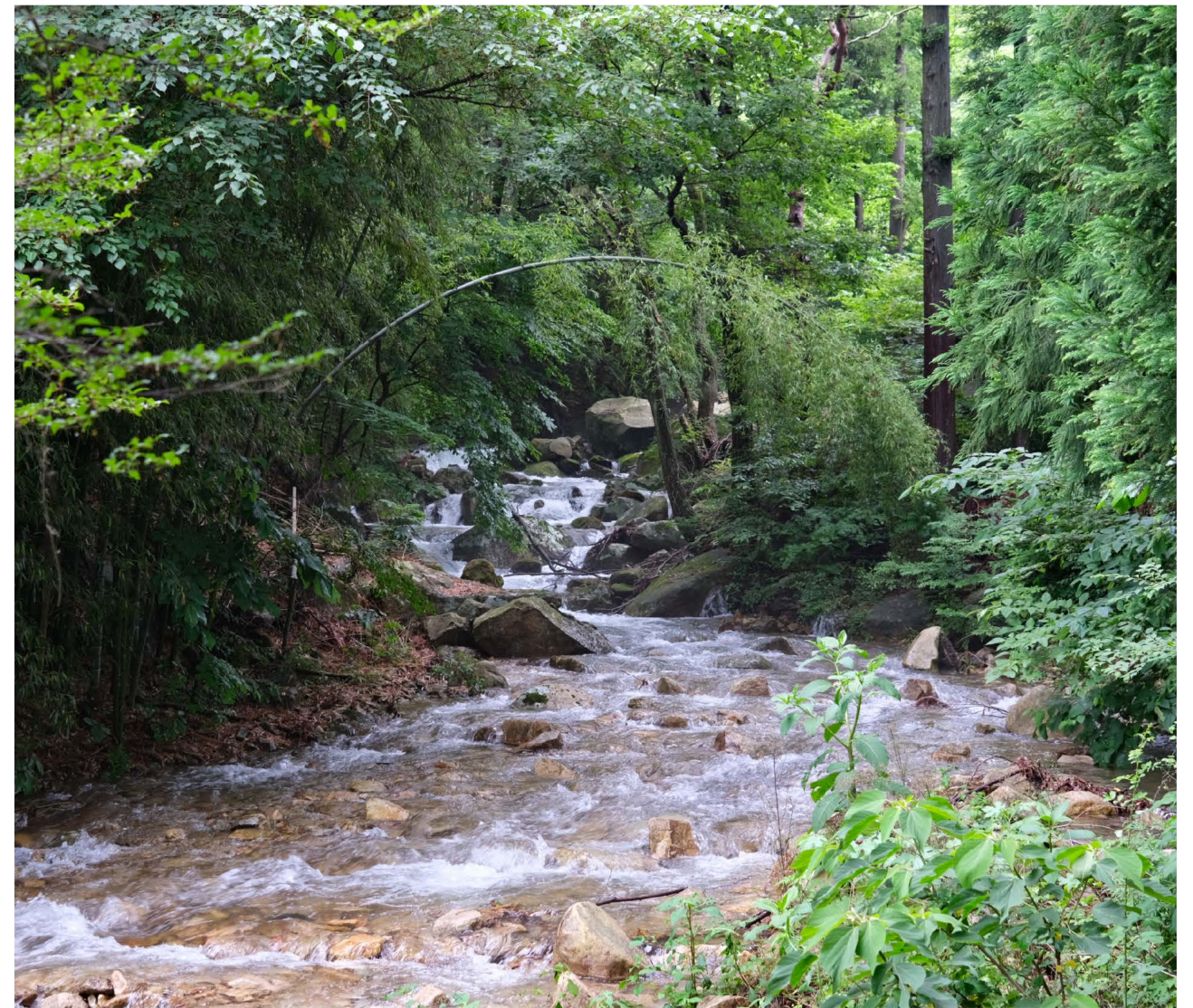
걷고, 멈추고 담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 여정은 '벗어남'이 아니라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_여행자 김지혜

아마 떠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방 안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나를 이끈 건 여행, 사진, 글, 만남, 도전. 흥미로운 키워드들의 집합체처럼 보였던 남해 '여행의 방'이었다. 높고 딱딱하고 촘촘한 건물들이 시선을 압박하던 일상을 벗어나, 우직하고 푸르며 묵직한 산이 나를 내려다보는 곳. 무식하게 쏟아지는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감각을 사로잡는 남해의 산속으로 스며들 듯 들어갔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 도착지가 과연 있을까 싶을 즈음, 삼송나무를 지나 비와 안개 속에 숨겨진 독일 마을에 닿았다. 한국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일에서 귀국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정착해 만든 마을이다. 하얀 벽, 붉은 기와, 이국적인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나는 그 공간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비 오는 오후, 원예예술촌을 거닐다 멈춰 선 순간이 있었다. 젖은 나뭇잎 끝에 빼곡히 맺힌 투명한 물방울들. 떨어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마치 시간의 속도를 늦춰놓은 듯, 고요하게 내 마음 안에 스며들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 설렘과 함께 어딘가 말랑한 불안이 있었다.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말없이 맺혀 있던 생각들. 처음엔 이 여행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길 바랐다. 일에서, 익숙함에서, 일상의 나로부터. 하지만 걷고, 멈추고 답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 여정은 ‘벗어남’이 아닌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잎 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내 마음속에 조용히 맺혀 있던 감정 하나쯤은 톡,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해라는 장소, 그리고 이 여행은 그런 작은 해방의 시작이 되어주었다.



독일마을 지나 도착한 내산마을 ‘높고 골이 깊은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 산’이라는 뜻의 이름. 단순한 산이 아니라, 주변보다 더욱 깊이 감춰진 ‘속 깊은 산’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비 온 뒤 자력을 되찾은 계곡물을 지나 그 위를 스치던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결국 닿은 바람흔적 미술관.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웅덩이를 숨겨놓은 고요한 편백자연휴양림. 양들의 끝없는 식탐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양마르프 언덕까지. 자연 속 쉼을 이어주는 이 테마 장소들을 오가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곳의 다음 계절은 어떤 색일까.



마음 한구석이 흐려질 때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안개조차 감추지 못할 존재가 있는 그곳.
 이름처럼, 속 깊은 어딘가에서 지친 나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산이었다.

그러니—
 남해, 그 산속으로. 폭삭 안겨보라고.



나는 왜 남해에 갔을까?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글과 사진으로 여행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_여행자 정진규

나는 왜 갔을까? 여행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을까. ‘여행의 방’ 참가 신청서를 쓰면서도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는데,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처음 마주한 남해 독일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색감은 참 따뜻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권다현 작가님의 여행 글쓰기 강연. 사진을 찍고, 풍경을 보고 그곳의 공기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경험을 글로 풀어내는 건 늘 어렵게 느껴졌던 나에게 ‘여행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을 쓸 땐 예쁘게 포장하지 말고, 나의 바닥을 보여줘야 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이야기보다, 내 안의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으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뜨거워졌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닌, 나를 위해 써보는 글. 그 한 문장이 이 여행의 큰 선물이었다. 영길 작가님과 한스 작가님의 여행 사진 찍기 수업에서는 같은 풍경을 찍더라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순간을

남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남해의 바다와 방조어부림 숲, 지족마을 죽방렴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이걸 꼭 담아야지’ 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을 어떻게 남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소라면 스쳐 지나쳤을 풍경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빛의 방향과 프레임을 고민하며 찍었던 시간. 그 덕분에 남해의 바다와 숲, 해무 낀 어부림 숲의 풍경을 그저 예쁘다며 찍었던 예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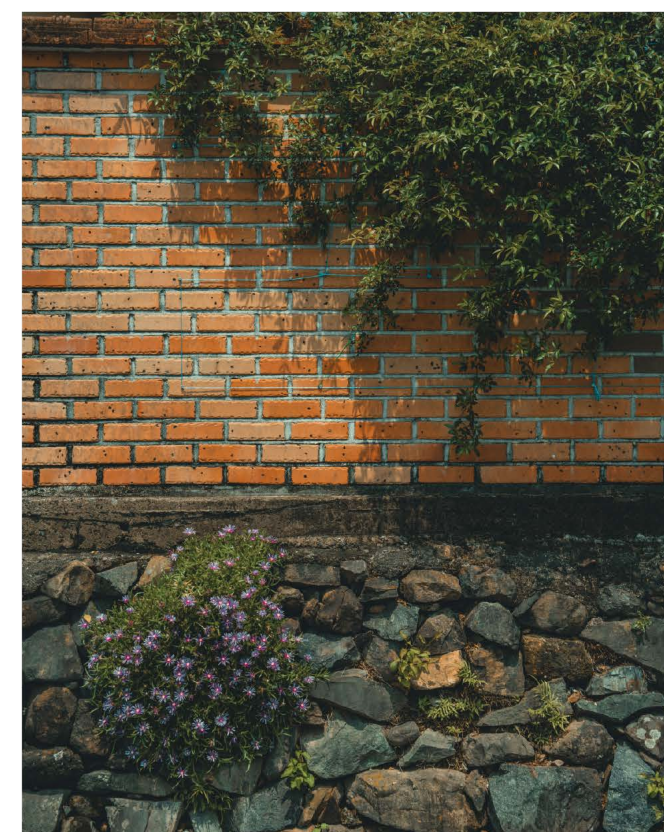




사람들과의 시간도 소중했다. 제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우리였지만, 1박 2일을 함께 여행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독일마을의 알록달록한 지붕 아래를 걸을 때, 지족마을의 죽방렴 앞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물건리 방조 어부림의 풍경을 함께 찍을 때마다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저녁 식사 자리에선 서로 웃으며 하루를 정리했고, 마지막 날엔 ‘함께 해서 참 좋았다’라는 진심이 자연스레 오갔다. ‘여행의 방’은 그저 ‘좋은 풍경을 보는 여행’이 아니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글과 사진을 통해 여행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더 특별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이런 마음으로 떠나고 싶다.



나는 왜 남해에 갔을까?
지금은 그 답을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03

이곳은 누군가의 집이다.

오늘은 비가 와도, 내일은 맑을지 모른다.

두려워하던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이 더없이 즐거울지 모른다.

_여행자 박혜교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행 온 이곳 남해는 누군가의 집이다.

나는 무척 겁이 많아 한평생 사람을 기피했고 특히 도시를 두려워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에, 통영의 조용한 항구 동네로 독립을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부산,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지금껏 놓쳐온 것이 많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아직 젊되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한몫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언제까지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존에 대한 압박에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쌓고자 난생처음 대도시에 발을 들였다. 나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부산에서의 나날은 하염없이 바빴다. 작은 바다 동네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구 주워 담았고, 또래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주저 없이 나갔다. 겁을 먹었던 세월치고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다. 광안리와 해운대처럼 좌우로 고층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에 점령당한 바다가 아닌, 해가 지면 가족들 이외에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던 상족암과 일을 하다 머리가 아프면 외투만 주워 입고 나가서 1분 내로 볼 수 있던 한려해상 바다를 그렸다. 그러던 중 한 공고를 발견했다. 남해, 사진, 그리고 여행이라고. 나는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 길로 중고 카메라를 구입했다. 얼마 후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남해 여행의 방 프로그램 신청하셨죠?”

출발했을 때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시간 계산을 잘못된 나는 남해 직행버스를 놓치고 말았고, 대신 삼천포행 버스를 탄 후 삼천포에서 독일마을로 가는 루트를 택했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정류장 옆에 있던 삼천포의 한 슈퍼 사장님께서 처마 아래서 비를 피하도록 해 주셨다.

“이 동네는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요.”

“터미널에서 여기 오는 버스가 있나?”

“아뇨. 해태 거리에서 내려서 걸어 왔어요.”

“그럴 테지. 옛날에는 삼천포에도 버스가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이 다 빠져서 다니는 버스가 없어.”



어릴 적 고성에서 살던 때는 삼천포라 하면 근방에서 가장 잘나가는 곳이었다. 요즘은 낚시점에 손님이 통 없다던 고성에 있는 조부의 말이, 통영이 유명도시가 다 되었다는 한 통영 자영업자의 푸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독일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멈출 기미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진을 사랑해 모인 사람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고, 와중에 비를 포함한 모든 물을 좋아하는 나만이 홀로 신나 있었다. 원예예술촌 정상의 전망대에 올랐을 때 "원래는 여기서 바다가 보이는데..."하며 운영진께서 안타까움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원예예술촌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고, 모두가 바라던 전망대에서의 바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미소, 그리고 원예예술촌에 사는 두 마리 아기 고양이들이 금세 지워 버렸다.



이 에세이의 첫머리를 장식한 사진, 바람흔적미술관과의 만남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비가 온 직후여서인지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에 한동안 모두가 "귀가 트이는 느낌이다"라며 바람흔적미술관으로 향하는 개울 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서 만난 바람흔적미술관 관장님은 자신이 평생 조각에 종사했으며, 매달 새로운 미술 프로그램을 열어 지역민들을 초청하고 지역 예술문화의 발전에 힘쓰신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술관에 사는 애교 많은 고양이 '쭈쭈'는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 병원에도 데려가고 음식을 직접 먹여 가며 살려내 지금껏 건강하게 키웠다고도 하셨다. 더불어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는 다른 방문객이 없었지만 곧 부부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이 더 찾아와 작품이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커피볶는 조각가, 이승모 관장의 바람흔적미술관은 바로 저 풍경 속에 있다. 아파트도 고층 건물도 없는 초록의 바다와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 사람의 흔적이라곤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진. 그러나 저 풍경은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의 아주 일부일 뿐이다. 고개를 뒤로 돌리면 오색의 바람개비와 새파란 그네, 달마다 다른 작품이 걸리는 미술관과 전시장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고소한 커피 냄새, 방문객들의 손길을 마다하는 법이 없는 사랑스러운 하얀색 고양이가 당신이 발 디딘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다음날이 되자 하늘이 완전히 맑아져서인지 삼동면의 변화가인 지족마을로 나와서인지 전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장어구이 맛집 달반늘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지족의 유명 카페 샘성에서는 대부분의 빵이 품절이었다. 지족해협 죽방렴의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전날에는 그렇게 울적해하던 팀원들 역시 밝은 얼굴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나 역시 일정이 끝났을 때는 sd 카드 용량과 카메라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였다. 내가 지금껏 들어 온 사람들의 말대로, 남해안 지역에서는 갈수록 발길이 끊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는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에게 가게의 처마를 내어주는 친절이 있고, 서울의 대형 전시관까지 가는 데 6시간이 걸리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작은 미술관이 있고, 변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푸른 바다가 있다. 여전히 이곳은 누군가가 밥을 먹고 이웃과 만나 삶을 꾸려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당신, 홀로 여행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단체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도시에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돈도 시간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저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던 일이 있는가?

오늘은 비가 와도, 내일은 맑을지 모른다. 두려워하던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이 더없이 즐거울지 모른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곧 누군가가 찾아올지 모른다. 죽어가던 새끼 고양이가 사랑받는 성묘로 자라날지도 모른다. 당장 눈에 보이는 풍경에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일지도 모른다. 호수로 보이는 저것이 사실은 저수지라 온 군내의 벼를 기르고 당신의 뱃속을 채울지도 모른다.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이 다를 때가 있고, 진실이 꼭 하나가 아닐 때도 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저 풍경 속으로 발을 내디뎌 보라.
그 첫걸음이 영원히 잊지 못할 사진으로 남아
가슴 속에 박힐지도 모르니.**

하나의 점이 남해에 찍히다

예상하지 못한 풍경과 마주한 두려움과 설렘,
그게 진짜 여행이었다.

_여행자 정유진

몇몇 점들이 이어져 삶의 방향을 만든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점 위에 또 하나의 점을 이어 붙였다.



남해는 진주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초등학교 땐 삼동면 갯벌 체험, 중학생 땐 수련활동, 대학생 땐 MT 로 셀수 없이 많은 기억이 이곳에 남아 있다. 시간이 흐르며 익숙한 것들이 희미해질 무렵, 우연히 ‘남해 여행의 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남해에서 팸투어를 한다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만 가는 거 아냐?’ 나도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몇번을 망설이다 마지막 날 겨우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일은 나의 또 다른 남해의 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 부산,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10 명의 참가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우리는 각자의 이유를 안고 남해에 도착했다. 첫 점심은 슈니첼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 남해 기자단을 10 년 넘게 해오신 미정님, 웹툰 각색 작가이자 자유로운 여행자 혜교님, 그리고 권다현 여행 작가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일을 하지만 여행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오래 못 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과 관심사, 작은 취향까지 모든 대화가 흥미롭고 따뜻했다. 권다현 작가님이 제주 여행 에세이를 쓰며 하루에 여섯 끼를 먹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엔 모두가 웃었다. 나 역시 여행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대중적인 장소, 인기 있는 맛집을 좇게 된다. 그래서 좋아하던 감정이 어느 순간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이진 같은 일을 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묘한 감정이다.

비와 안개로 가득했던 독일마을. 권다현 작가님의 강의 중 “길을 잃는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예상하지 못한 풍경과 마주한 두려움과 설렘 — 그게 진짜 여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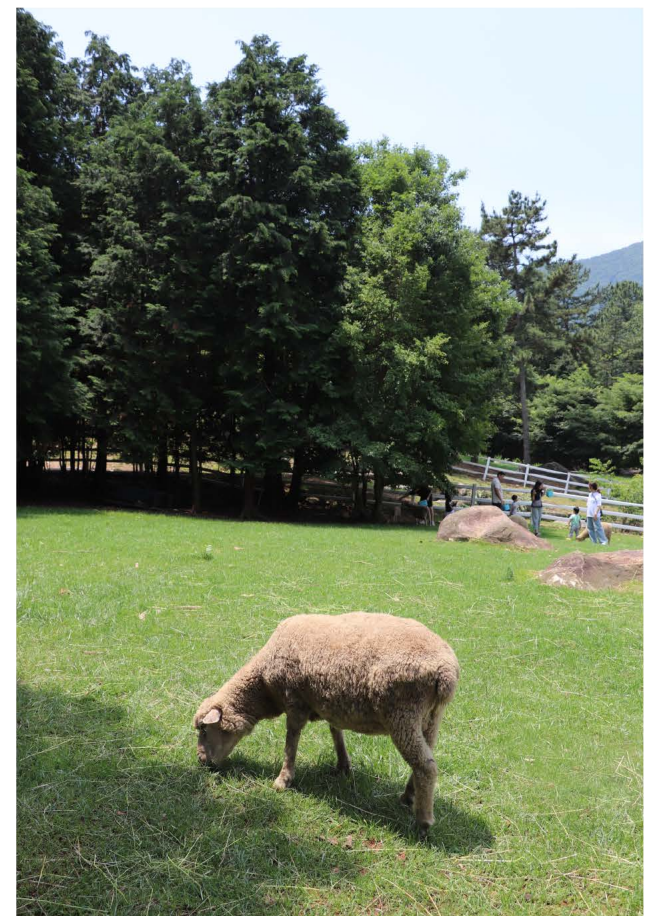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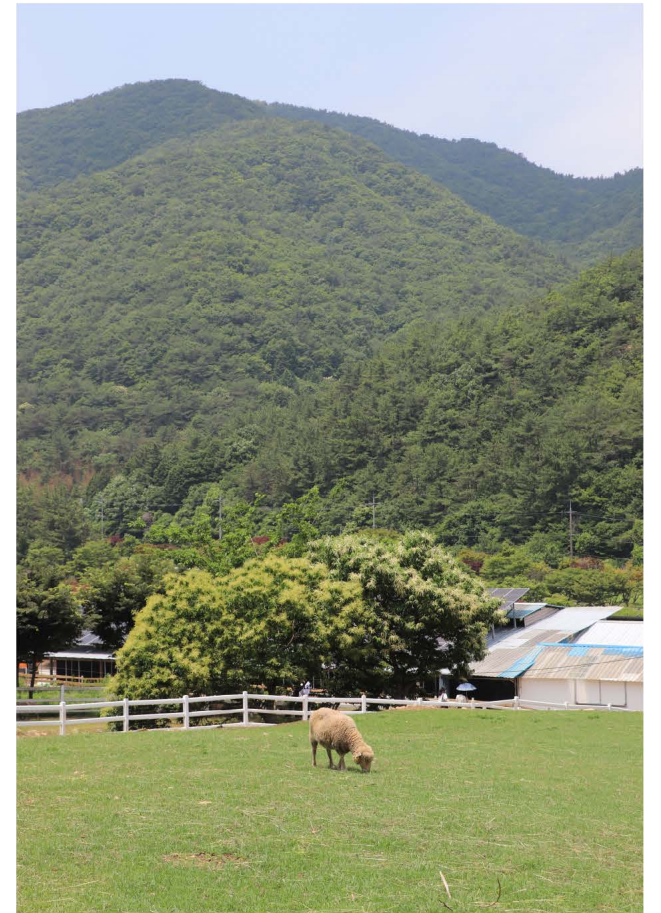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화창한 남해의 풍경을 상상하며 멋진 사진과 글을 남길 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비가 우리를 맞았고, 예상과는 달랐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던 여행이었다.

비와 안개가 있었기에 서로 짐을 챙겨주며 가까워졌고, 남해의 새로운 매력을 찾기 위해 더 천천히 더 깊이 걸었다. 특히 바람흔적미술관은 산 중턱에 있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됐다. 젖은 땅에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중간 즈음 차가운 공기가 목 뒤를 스쳤을 때 뜨거웠던 체온이 식으며 작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길좌우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와” 하는 탄성이 터졌다. 제안한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 한참을 멈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예기치 못한 계곡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여행 이유를 찾았고, 권다현 작가님이 말한 여행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첫날의 비와 안개가 없었다면 둘째 날의 햇살은 그저 평범한 날씨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둘째 날, 우리 팀은 삼동면 편백자연휴양림으로 향했다. 비 온 뒤의 숲은 더 짙은 색을 품고 있었고 새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남해는 단순히 풍경만이 예쁜 곳이 아니었다. 시간을 천천히 쓰게 해주는 곳이었다. 편백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느긋하게 자연을 누려보았나 생각했다. 조금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고 감정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해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흘렀다. 휴양림 다음 목적지인 양떼목장엔 많은 관광객이 있었고 양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양들은 하루 종일 뭐 하지?”, “진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걸까?”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관광객이 없는 아래쪽 목장에서 본 양들은 전혀 달랐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조용히 풀을 뜯거나 어슬렁거리며 목장 한편을 거닐고 있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익숙한 건 관광지의 풍경이었고 그 안에서 조용히 숨 쉬는 본래의 모습은 생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다가왔다. 함께한 사람들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우리는 모두 기록자이지만, 그보다 먼저 여행자였고 사람 사이의 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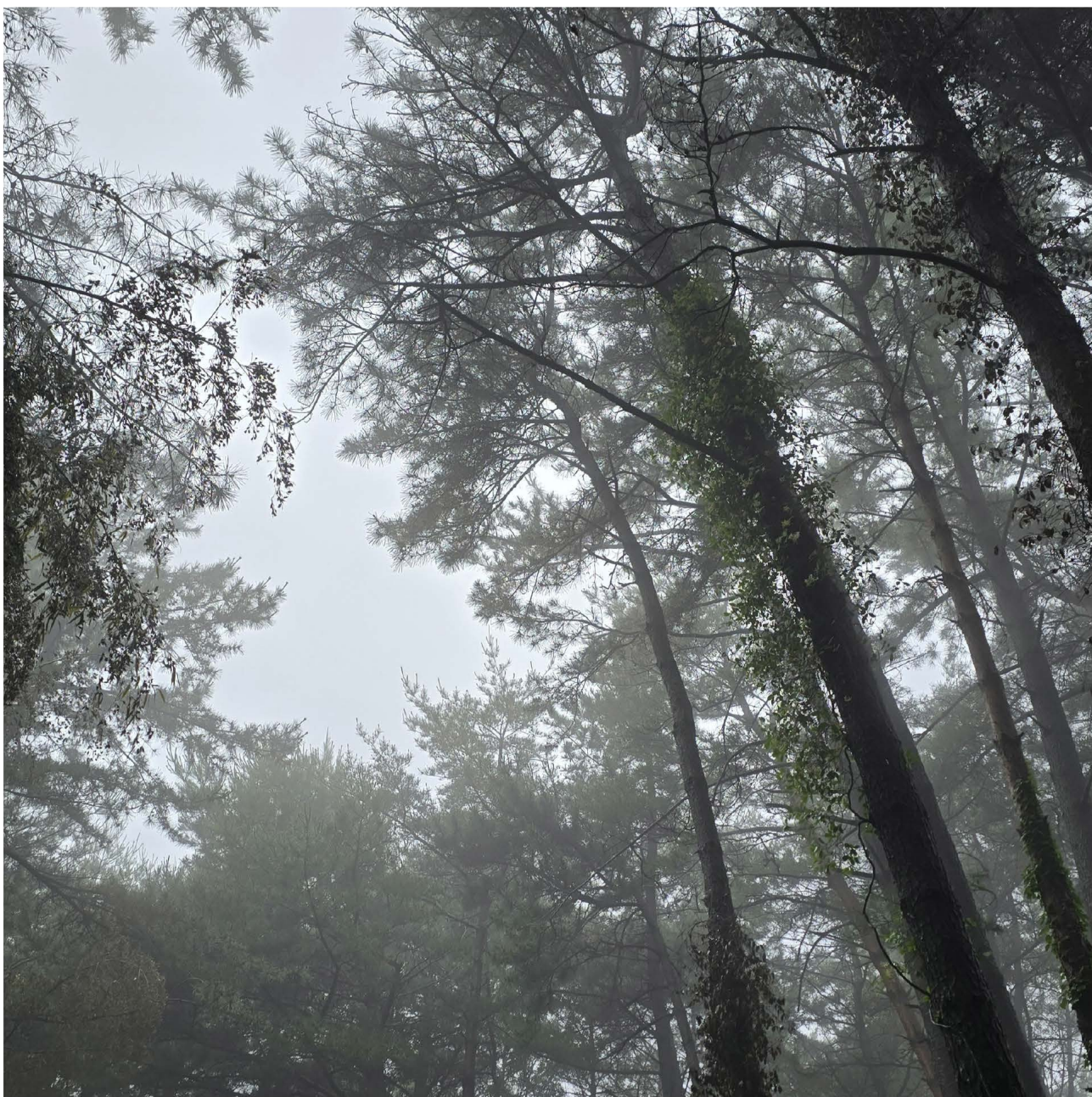
나는 또 하나의 점을 남해에 찍었고,
그 점은 앞으로의 내 길 위에서
하나의 방향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섬과 산

삶의 시간을 각각의 모래알로 쌓아 올린 산들이
어쩌면 이곳에서 이어졌을 수도 있겠네.

_여행자 강동한



우리는 저마다의 산을 짊어진 채
그곳에 있었다. 세찬 비를 헤치고
마주한 해무처럼 어딘가 모호하고,
다소 경직된 인사를 나눴다. 선
그어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남쪽
바다를 온전히 품은 곳으로
이해하고 있던 남해군은 내게 그리
낮선 곳은 아니었다. 다리 건너
사천에서 군 복무를 했고, 고성에
있는 외가 덕분에 이 일대는
익숙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따라
낚시하며 수많은 여름을 남해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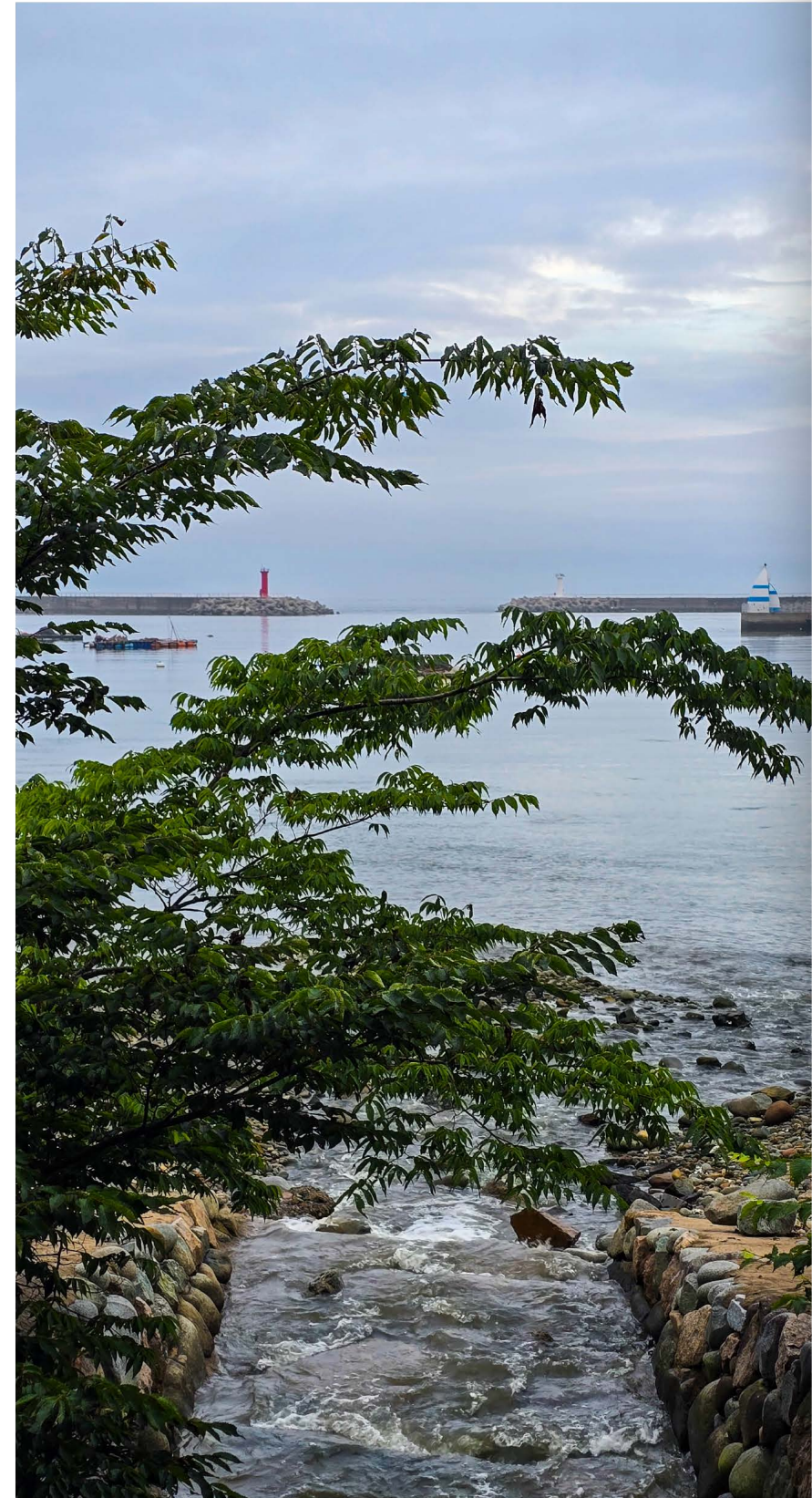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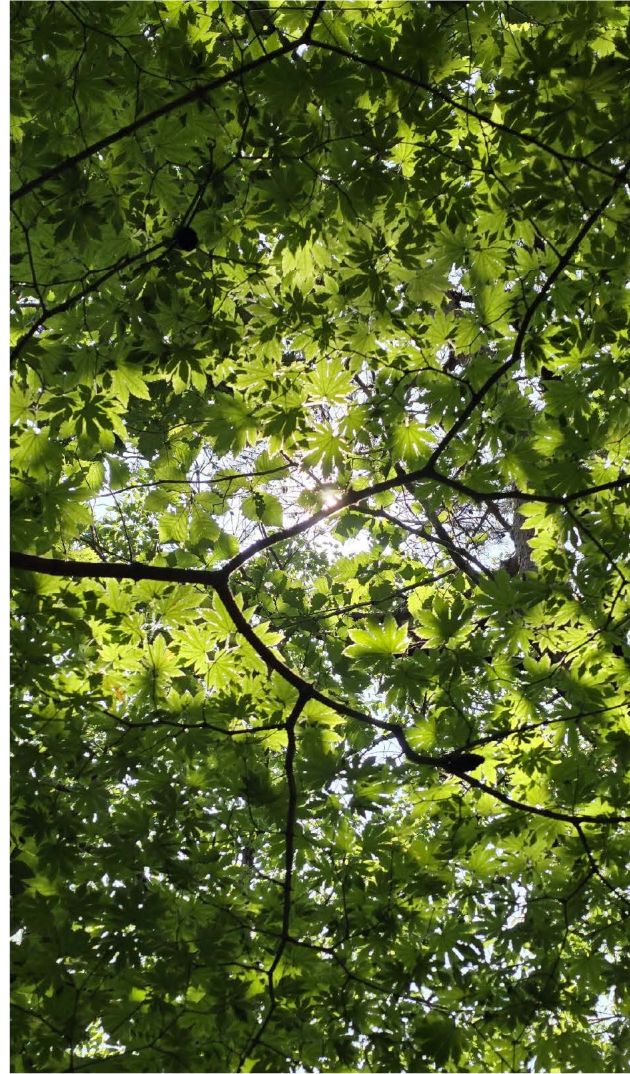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여름, 남해는 바다로부터 이어진 안개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어떤 이유로 여기에 모였을까. 내가 처음 가진
의문이었다. 참여자들의 자기소개를 듣기 전까지 적어도 ‘사진’이나
‘글쓰기’라는 공통 관심사를 품고 있겠거니 짐작했다. 무어라 나를 소개했고,
차례대로 자신의 작은 부분을 꺼내 놓았으나 처음 보는 얼굴과 이름을 잇는
데에도 여념이 없었다.

상승과 하강

고요히 내리는 비를 따라 음악과 목소리를 듣고 걸으며, 사람들은 어색하게나마 자신의 도구를 꺼내어 순간들을 기록했다. 몸은 이미 습기에 젖어 무거웠지만, 그 풍경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빛은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은 안개 탓에 멀리까지 볼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시야가 닿는 가까운 풍경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 번 스쳐 지나면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독일마을의 전경. 유럽의 어떤 고성처럼 안개와 산새에 폭 안겨 있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어 사진을 연신 찍어댔다. 광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주황색 지붕들과 그 뒤로 보이는 바다와 등대도 좋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을 자체도 충분히 좋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지면 발견하는 새로움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오가는 길부터 다랭이마을이나 독일마을처럼 고저가 있는 풍경으로 남해를 기억했다. 이름은 바다를 담고 있지만, 내게 남해는 산의 이미지가 강했달까. 산이었던 것들이 바다에 잠겨 섬이 되는 것이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 첫날은 원예예술촌에 오르고, 바람이 머물렀던 자리를 지나 여태 알지 못했던 몽돌 해변으로 내려가 기록자들과 소풍하는 것으로 상승과 하강의 일정을 마쳤다.





섬과 산

지난밤 이상하리만치 쉬이 꺼낸 각자의 조각들로 서로를 빚어가며 우리는 친해진 것만 같았다. 서로의 사연을 따라 서성이며 다가서면서 우리를 우리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날이 밝고 밤새 쌓아 올린 다정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내산마을의 편백나무 숲길 사이의 초록과 빛, 전날 내린 비가 오솔길 사이로 번져 나왔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 보니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나아가니 푸른빛 물 위에 수초가 꼭 섬처럼 떠 있었다. 이곳은 산일까, 섬일까 나는 두 번째 의문이 들었다. 의외로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었다. 섬은 혼자인 것 같고, 산은 산맥을 따라 함께이니 덜 외로울 것 같은 산이라고 하자.

고집 센 양들에게 처음 먹이를 뺏겨 보고, 중심가에서 배불리 점심을 먹고 짧은 여행을 마치려고 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우연히 나타난 썰물의 풍경. ‘멈췄다 가요.’ 차에 타고 있던 모두가 입 모아 말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다른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팀원들을 모두 만났다. 삶의 시간을 각각의 모래알로 쌓아 올린 산들이 어찌면 이곳에서 이어졌을 수도 있겠네, 라는 낭만 가득한 문장을 적어 내리기에 충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과 파도의 잔물결, 하얀 새와 파란 하늘. 초록과 바람, 빛과 사람. 남해는 섬이 산이 되는 곳이었다.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낯섦은 진작 사라지고 없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익숙했던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_여행자 김건우



“약 효과는 …한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수술 부위는 보통 …일 뒤에 아물 텐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단어, 개인차.

이번 여행은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었다.

우연히 본 남해 '여행의 방' 공고. 작가님들의 프로필을 보자마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신청했다.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고 참가자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좋아하던 작가님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맞다. 나는 MBTI 상 극한의 I였다. 첫날 점심, 음식의 맛이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 맛있는 식사였기에 눈앞의 음식조차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찍기에 나도 덩달아 셔터를 눌렀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가서 먹어봐야지, 분명 맛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병한 상태로 권다현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가자, 차분해지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연은 지금까지 나에게 솔직했는지, 내 감정과 상태를 돌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았다. 전혀 없었다. 나의 감정과 상태에 집중해 보기로 결심을 하니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다. 점점 막막해지려던 찰나, 눈치라도 채 듯 강연은 마무리가 되었다.

사진 실습이었다. 강연을 들었어도, 목표가 생겼어도,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나는 평상시와 같이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눈에 보리수가 눈에 보였다. 강연을 듣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찍고 있는 다른 시야가 보였고, 넓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여행의 핵심은 모든 일정이 끝난 첫날 늦은 저녁이었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 소소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모두가 경청하는 그 모습. 부담스럽지도 걱정이 되지도 않는 편안함이었다. 낯선은 진작 사라지고 없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익숙했던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후 권다현 작가님의 질문이 잔잔하게 들어왔다. 담담하게 답변했으나, 질문의 임팩트는 충격적이었다. 빨려 들어가듯 생각에 빠졌다.

‘나는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것이 목표였고, 모든 것들에서 남들을 따라가려 했었다. 근데 나는 개인차를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까?’

그 이후 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사진도, 글도, 일상생활도 매번 예시를 찾아왔다. 참고 자료는 나에게 예시이자 답안지였다. 1박 2일 동안 작가님들의 말은 유사했다. 많이 쓰고, 많이 찍고 하다 보면 나만의 것이 생긴다. 나의 속은 비어 있었다. 그저 긴장과 두려움이라는 연막 속에,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을 뿐. 수많은 장면을 2일간 봤고, 많은 사진을 찍었다.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마지막을 장식하듯 수국들이 펼쳐졌다. 빨강, 파랑, 초록의 색들이 섞여 있었다. 여러 색의 하모니가 이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동일한 색을 찾고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이후 나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어디를 가든, 누구랑 가든,
무엇을 느끼든 모두 개인차가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여행의 의미

여행의 방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참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의 여행이었다.

_여행자 원종호

사진은 재미없고 여행은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

여행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주로
국외 여행만 다니다 보니 국내 여행은 가야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으로는
움기지 못하는 등, 고민만 하고 있을 무렵 이번 여행 내용을 알게 되었다. 무려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작가님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최근에 하고
있던 고민들을 간략하게 지원동기에 담아 넣었고 감사하게도 여행의 방
프로그램에 뽑히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세 분의 작가님이 참석하셨다. 권다현 작가님의 에세이
강의에서 제일 와닿았던 것은 많이 써보라는 것이다. 글쓰기는 많이 안
해봤지만 사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내가 사진을 시작하고 깨달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찍어봐야 한다'이다. 많이 찍어봐야 경험이 쌓이고
사진이 는다. 글쓰기도 똑같은 것이다.

나는 글쓰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안 써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만시간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하듯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글도 쓰던 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5번째 정도이지만 다시 시작할
때마다 뭔가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나는 여행 글을 시간, 사건 나열식으로 써왔다.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쓰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시간과 사건 나열식으로
구성되었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사건과 시간에 막혔었다. 이 강연을 듣고
예전부터 생각만 했던 여행에 대한 기록의 방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다. 비록 나의 많은 여행에 대한 시간과 사건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담은 사진에 대한 나의 감상은 남아있다. 사건과 시간이 기준이 아닌
사진에 담겨 있는 나의 감상을 글로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행의 방 과정에서 두 분의 여행 사진작가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항상 궁금했었다. 전문 사진작가들은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말이다. 본격적으로 촬영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했을 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나는 뒷통수를 한 대 세계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당연히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사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취미이기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이 생겨도 그냥 넘기곤 했다. 나는 이 비싼 카메라의 기능을 절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내가 배워야 할 것들, 시도해봐야 할 다양한 기능들이 넘쳐났다.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최근에 사진에 흥미를 잃어가던 이유는 목적과 목표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행의 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사진을 더 깊게 알아가는 데 큰 발판이 될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내가 주로 다닌 해외 여행에서 동행을 구해 새로이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한 경우가 많았다. 혼자 다닌 여행지보다 새로운 사람을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든 곳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었고 1박 2일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었다.

‘여행’이라는 말은 꼭 어떤 지역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 여행의 방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참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서는 하나의 여행이었다. 남해 독일마을과 삼동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간 것뿐만 아니라

나는 사진 외에 또 다른 취미가 있다.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간다고 하면 주로 유명한 곳만 돌아다니게 된다. 약 4년 전 남해에 가족여행을 왔었고 독일마을을 여행했다. 그때 독일마을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을 줄은 몰랐다. 독일마을 뒤편 산골짜기에 있는 양떼목장과 편백나무 숲, 독일 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천연기념물 방조어부림까지, 여행의 방이 아니었다면 와볼 생각조차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뜻 깊게 느껴진다. 또한, 사진과 여행에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 결은 다르지만 나 역시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최 측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의 방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남해가 알려주었다

다음 날의 맑은 하늘은 전날의 비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비가 와서 좋았고, 다음 날 맑음이 또 좋았던 남해 여행.

_여행자 임수진

누구에게나 남해 하면 상상되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남해는,



층층이 계단지어 있는 연둣빛 다랭이 논.

남해 특유의 파란 빛을 자랑하는 바다.

푸른 언덕 한가로이 풀 뜯는 양떼들이 노니는 목장.

웅기종기 이어진 갈색 지붕이 이국적인 남해 독일마을.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자리한 남해는 모두 짙은 햇볕과 같았다. 그래서 남해로 떠나기 전, 내 마음은 항상 따스한 햇살을 품은 듯했다. 나는 늘 답답할 때면 남해 가고 싶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곤 했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남해는 떠나고픈 여행지였다. 그래서일까, 나는 사람들이 간직하는 남해만의 에너지가 있나보다 생각하곤 했다.

2025년 6월 초. 서서히 예고된 더위가 시작되며 일기예보에서는 장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예년과 다르게 장마가 한주 앞당겨진다는 소식. 여행 전 어느 누구도 비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특히 장마라면 더더욱.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남해로 떠나는 날은 화창하길 바랐다. 적어도 흐린 날씨가길 바라며 나는 남해로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상예보 기사 타이틀은 '전국에 비, 남부엔 많은 비' 였다.

부산에서 남해까지 140km라는 적지 않은 거리를 빙길 운전할 걸 생각하니 사실 걱정부터 앞섰다. 그래도 다시 '남해의 에너지'를 상기시키며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자고 나는 되뇌었다.



생각보다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수많은 차에 한창 신경 곤두서고 집중하다, 어느 순간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빗길을 달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웅덩이를 지나는 차들에 물폭탄이 앞유리로 쏟아져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빗길이었기에 좀 더 안전 운전을 하고 운전엔 집중할 수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음악 대신 빗소리를 들으며 내가 좋아하는 고즈넉한 산재를 즐기며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오는 독일마을도 오히려 좋았다. '진짜'독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해가 쨍하다가도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진다는 악명 높은 독일 날씨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비 오고 안개 낀 남해 독일마을에 들어섰을 때 꼭 진짜 독일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원예예술촌도 그러했다. 꽃잎마다, 나무잎마다 빗물 머금은 원예 예술촌은 적당한 안개가 감싸안아 혼자 오래도록 머무르고만 싶은 느낌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각양각색의 주택과 정원을 구경하며 한참을 거닐다 원예예술촌 중턱에서 만난 전망대에 올라서니 남해 동천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안개와 해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남해 바다도 비 온 날만 누릴 수 있는 운치였다. 남해 독일마을 아래 생각지 못했던 몽돌 해변을 거닐면서도 오늘의 비가 좋았다. 비가 와서 장화를 신었고 거침없이, 또 자유롭게 다니고 또 바다에도 부담없이 걸어가 그날의 파도를 느낄 수 있었다.

물기 잔뜩 머금은 비가 주는 상쾌함까지, 그렇게 비가 와서 좋았다.



다음 날의 맑은 하늘은 전날의 비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운무가 지평선을 가리우는 절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전날의 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비가 와서 좋았고, 다음 날 맑음이 또 좋았던 남해 여행.

비가 오면 보통 날씨가 좋지 않다고 표현한다. 아마 이번 남해 여행 이후로 나에게 있어서는 바뀌지 않을까 싶다. 비가 오면 날씨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는 것일 뿐. 비가 와도 또 그 속에 ' 좋음'이 있다는 것을. 남해가 알려주었다. 아직 다음 여행에 대한 기약은 없지만, 다음 여행 때 날씨 체크를 하더라도 이제 비 온 날씨만의 특별함을 알기에 '비 소식'에도 내 마음은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오래 기다려온 순간

결국 진정한 여행은,
나만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만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_여행자 정소란

아주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있다. 나의 색과 그들의 색이 만나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순간.
비 온 뒤 하늘에 걸리는 의미상의 무지개가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그 자체의 찬란한
무지개 말이다.

나에게 여행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가 아닌, 살아보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며 그곳의 공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 천천히 마을을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고, 때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손길을 보태고,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이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여행'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여행이 일상과 다르기를 원한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갈망한다. 평소엔 맛보기 어려운 비싼 음식을 먹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행'일지 모른다. 물론 나 역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내게 여행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은 나의 여행에서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여행했다.



그러나 자유를 만끽하던 내 여행에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경이로운 풍경을 마주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별것 아니게 만들어버렸다. 마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두 감정 사이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공통의 주제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나 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더 이상 외로운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남해, 특히 독일마을은 내가 유독 애정하는 곳이다. 23살 여름 독일에서 마주했던 세모 지붕 집들과 슈바인학센, 소시지, 그리고 흑맥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 또 갑상선암 수술 이후 첫 가족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런 추억을 품은 남해 독일마을에서 아주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만났다.



‘여행의 방’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인 만큼, 여행을 사랑하고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남해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촬영을 해야했는데, 이 여행에서는 의도적으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예로 들면, 우연히 만난 부부와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스몰토크를 나누었고, 식당에서 옆 테이블 할머니와 벽에 걸린 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웃었고, 죽방렴에서는 구경중인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죽방렴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은 마치 나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색깔과 섞여 무지갯빛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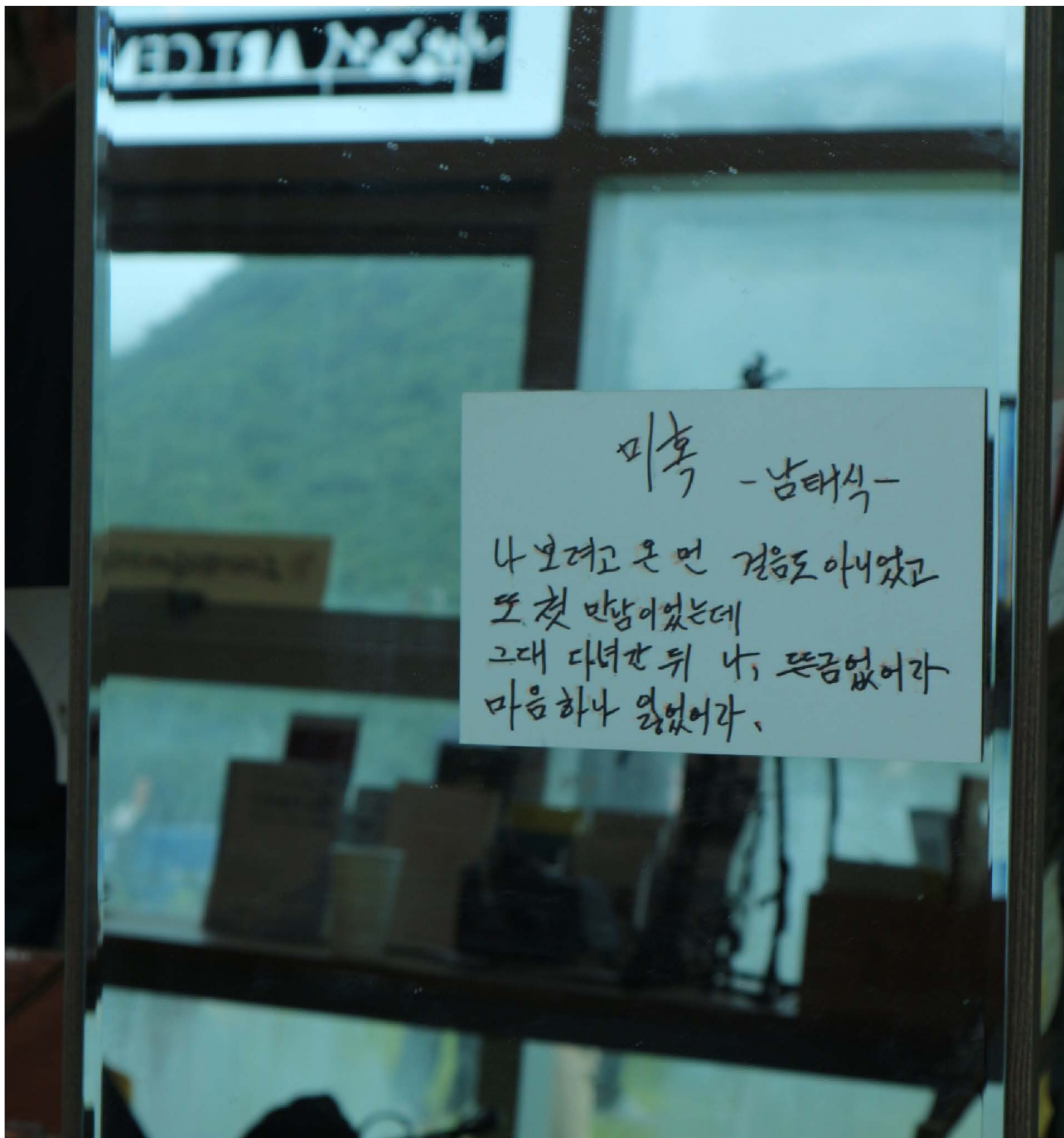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껴지는 이유 모를 충만함의 이유를 찾은 순간, 기쁨과 얼떨떨한 감정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각 1분 남짓한 시간, 합쳐봐야 24시간 중 겨우 3분이라는 찰나의 시간이었다. "정말 이거면 되는거였어?"라는 물음이 머리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고 갈망했던 내가 바라던 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굳이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순간과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단순히 짧은 대화가 아닌 나의 리듬을 기다려주고 나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함께'라는 불편함 사이에서 늘 고민했던 나의 오랜 숙제가 드디어 풀리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애초에 찾던 것이고,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래도록 쌓인 고민이 내 스스로 '대단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태껏 내가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순간이기에. 그만큼 힘든 것이기에, 이 경험은 나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남해에서의 하루는 나의 색깔과 다른 사람들의 색깔이 충돌하는 대신, 조화롭게 어우러져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을 내던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1년간의 호주 생활을 앞둔 지금, 나는 이 기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앞으로 내가 떠날 혼자만의 긴 여행 속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인연들과 함께할 여행 속에서도, 나의 색과 다른 이의 색이 만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워내는 순간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국 진정한 여행은, 나만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만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10

착각

가까이 있어서 곁에 있어서
귀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들이
귀해지는 순간이다.

_여행자 지미정

남해를 잘 안다는 혼자만의 착각. 남해로 귀촌했다가 어느 덧 5도 2촌을 해보겠다고 다시 도시로 나간지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요즘 다시 남해를 여행하듯 돌아보며 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남해를 다시금 느끼는 중이다. 남해에서 사는 6년 동안 원예예술촌의 경우 1년에 1번 갔다고 해도 고작 6번에 불과하다. 원예예술촌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 본 남해 어느 마을의 논, 삐둘삐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이 눈 에 들어온다. 이국적인 원예예술촌을 따라 오르다 잠시 남해라는 것을 잊었지만 그래, 여기는 남해가 맞다. 눈에 가득 찬 물은 흐린 날이지만 산의 반영이 되고 있고 일 년에 며칠 없는 해무가 가득한 날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 섬 본연의 날씨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해무가 가득한 둔촌마을 해변은 이색적인 풍경을 이룬다.

남해바다 특유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오랜만이고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실컷 사진을 찍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한참을 찍고 나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린 것만 같다.



남해는 나에게 이런 곳이다. ‘마음의 고향 같은 곳’ 이라는 낡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보다 더 떠오르는 딱 맞는 단어도 없는 것 같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남해로 이사 와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뿌리(?) 반쯤 내리고 살아봤다. 그래서일까. 나의 찢친도 정든 이도 이제는 나고 자란 찢 고향인 부산보다 이곳 남해에 더 많아졌다. 그렇다고 그들과 무언가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다. 그저 한 번씩 와서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는 게 다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면 무언가 싶기도 하다. 그렇게 만나고 돌아서는 내게 철마다 나오는 농산물을 한아름씩 안겨주기도 하는 남해사람들. 남해에서 살 때는 흔한 마늘쫑도 지금 내겐 사먹어야 할 귀한 작물이 되었다. 그 귀한 마늘쫑을 남해로 마실 온 내게 “줄 게 이것뿐이네” 하며 한아름씩 안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해방식의 애정표현인 셈이다.



다 안다고 느꼈던 남해를 채 10년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례로 내 머릿속 멸치쌈밥은 그냥 생선찌개였다. 남해의 이웃집에 놀러 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의 방에서 독일마을 아래 식당에서 맛본 멸치쌈밥은 바삭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었다. 그동안 나만 몰랐던 것인가? 그동안 내가 먹어봤던 흔한 멸치쌈밥이 아니라 아주 맛깔난 별미였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번쩍했다. 잘 안다고, 이미 다 안다고 여겼던 나의 착각! 멸치쌈밥을 먹고 돌아서 나온 뒤부터 남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흔하다고 스친 죽방렴, 석방렴이 남달리 보이는 매직! 멸치잡이가 시작되는 5월 죽방렴 참나무에는 새순이 올라온다. 이번에도 역시나 새순이 올라와 있다. 그러려니 하며 무심코 넘긴 하나 둘이 귀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이 있어서, 곁에 있단 이유로 귀하지 않게 느꼈던 것들이 귀해지는 순간, 바로 여행이 주는 매직이 아닐까.



기억하고 싶은 남해의 장면들



